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50 밥은 사랑-부채여사 편<1>

'공주'의 따뜻했던 품과 음식을 추억하며

그녀는 늘 엉덩이까지 닿는 처렁처렁한 머리를 흔들리며 교정을 바빠 걸어 다니곤 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긴 머리를 단 아하게 묶고 있는 때로는 우아한 생활복차림으로 때로는 도회적인 오피스 룩으로 대학 캠퍼스를 활보하며 만학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모습은 이팔청춘이 따로 없었다. 이미 불혹(不惑)을 넘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여사일까. 무엇에도 허허롭고 마혹됨이 없을 것 같은 그녀에게는 자타가 공인한 의외의 지병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공주병'이다. 공주의 귀퉁이라도 갖추려는 듯 그녀의 손에서 떠나질 않는 작은 부채가 박진감 있게 펼쳐져 팔랑팔랑 바람을 일으킬 때는 왠지 그녀의 태생이 믿어 의심치 않아져, 나는 그녀를 공주로 인정하고 '부채여사'라는 칭호를 하사했다.

하계 소독해 짬을 만들고, 대나무살로 엮어 진 소쿠리만 고집해 청국장을 뜨던 엄마는 방 하나를 아예 청국장 전용실로 만들었다.

"그 방은 아예 청국장 뜨는 방이었어. 구들을 만들어 장작불을 때는 방이었는데, 그 방에 있으면 몸이 녹아내리면서 분해가 되는 느낌이거든. 그러나 장맛이 얼마나 기가 막

눈물이 마를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기도 모자라 무슨 작은 일만 있어도 핑계 삼아 하염없이 울곤 했다.

"그 사고가 없었으면 학교에 다닐 일도 없었을 거야. 말하자면 엄마 가진 빈자리를 메우려고 공부한 거야. 엄마 잃고 나서 내 손으로 밥도 끓여먹고 빨래도 해가며 철이 드는 것 같아."

꼭 이맘때면 뒷밭에서 열무를 한 아름 뜯어 된장을 넣고 쓱쓱쓱 밥을 비벼 사람들이 먹는 날에 설레발이었을 테다. 정성의 음식으로 사람들의 배속 마음속을 배불리 챙겨주던 모정이 가슴시리도록 청아한 가을하늘처럼 높고 푸르다.

"한때는 사람이 참 싫었지. 사람 좋아다 파주다가도 실망하면 한 번에 인연을 끝내버렸어. 그래서 내 별명이 한때 '쌍갈'이었다.(웃음) 이 사람은 이래서 살고 저래서 싫어 다 끊어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어. 이제 나한테도 엄마의 끼가 있으면 장

이고 뭐고 답가 사람들 퍼주는 재미로 살면 좋을 것 같아. 가는 날까지의 사람들하고 같이 잘 살아야지..."

이제야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된 부채여사는 어느덧 그리움에 사무쳐도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연륜의 소녀가 되었다. '만인의 엄마'가 되기 위해 독신을 고집하는 그녀가 이순(伊順)의 나이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그녀는 이맘때쯤이면 구들방에 청국장을 띄우느라 분주할 테다. 그녀의 엄마가 그랬듯이.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두부를 더플더플하게 썰어 넣은 청국장.

했겠누. 청국장엔 다른 거 일질 안 넣고 두부를 더플더플하게 썰어 넣고 파하고 고추만 넣고 끓였는데 그 맛에 다들 넘어갔지. 우리 엄마는 꼭 그렇게 끓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낙이 아닌 돈 못 모르는 딸에게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 해 먹이려는 모정은 감천(感天)의 경지였는데, 그런 엄마와의 이별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엄마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앞편에서 대형트럭이 달려와 차가 벌어진 것이다. 급지옥염으로 딸을 보살피던 엄마와 그렇게 이별한 지도 햇수로 5년이다. 눈에서

"엄마가 나를 공주처럼 떠받들며 키워어. 어디 밖이라도 다녀오면 내 발을 뽀뽀에 넣어 데워주고 손에 물 한 방울을 안 묻히게 했거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았는지 국수를 만들거나 송편을 빚어도 그냥 하는 법이 없었어. 잡곡이나 치자를 섞어 색깔별로 만들고,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 엄마를 꼭 모셔가곤 했지. 집이 늘 북적였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 때문이더라고. 난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평범한 음식 한 가지에도 남다른 조예와 솜씨를 발휘하곤 했던 그녀의 엄마는 특히 청국장을 잘 만들었다. 깊은 장맛을 내기 위해 집 주위에 있는 대나무의 잎을 따다 깨끗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9 한방과 양방

한·양의학 함께 시행된다면...

한의학의 양의학은 제각기 특징이 있다. 한의학은 만성 질환, 원기회복에 장점이 있고, 양의학은 급성질환, 통증 치료에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한의학과 양의학이 공존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중국, 일본 정도로 손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강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하다. 한의학과 양의학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사례1) 40대 여성 허리디스크 환자

양방에서는 엑스레이와 발의 워킹검사를 통해 요추 4, 5번과 골반이 불균형한 것을 진단하고, 교정요법을 통해 척추를 개선시켰다. 한방에서는 허리디스크가 발생한 원인을 소장, 대장기능 저하와 출산후유증으로 봤다. 장기능을 좋게 하고 출산후유증을 개선하는 한약을 처방했고, 침치료를 했다.

이 환자를 괴롭히던 여러 증상들은 깨끗하게 없어지고 예전의 건강을 회복했다.

(사례2) 50대 남성 오십견 환자

양방에서는 엑스레이와 근육계스트로 오십견을 진단하고 PRP 프롤로 치료를 했다. 한방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상이 오십견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복부에 약침요법을 하고 대장기능을 저하시킨 식적(食積)을 제거하는 장해독단을 처방해서 원기를 회복시켰다. PRP 프롤로 치료는 자신의 혈액 속에 있는 성장인자를 추출하여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시술이다.

(사례3) 30대의 남성 편두통 환자

양방에서는 편두통의 원인을 턱관절불균형으로 진단하여 교정요법과 PRP 프롤로 치료를 했다. 한방에서는 어깨 통증이 편두통을 일으킨 원인으로 보고 어깨의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과 어깨에 침치료를 했다. 편두통은 뇌의 문제는 거의 없고 대부분 턱관절, 뒷목, 어깨의 불균형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편두통을 일으킨

턱, 어깨를 치료하니 증상이 사라졌다.

평소에 필자는 환자에게 나사를 조이는 치료는 양방이고, 기침질을 하는 치료는 한방이라고 말한다. 한방과 양방이 함께 시행된다면 여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한의사와 양의사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체계와 언어를 갖고 있어서 소통하기 어려운데다 피부과, 치과, 안과 화회 등 자기분야의 전문가들끼리만 세미나를 열고 정보를 교류한다. 이러한 만남이 전공분야에 도움이 되지만, 아쉬운 점은 다른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인식과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한·양방의사 모임 '제마'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자기 분야의 치료사례를 발표한다. 한의사, 치과,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제사례를 놓고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니까 신선한 정보소통이 이루어졌다.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제마' 선생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제마' 스터디 모임이 꾸준히 진행돼 마침내 그 성과가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타나니 기분좋은 일이다.

우리는 스터디를 하면서 피부과의 새로 나온 스케일링 치료법을 서로 받아 보고, 정형외과의 새로운 척추교정요법을 시술하기도 했다. 필자가 처방한 정력한약을 함께 먹으면서 즐겨워하기도 했다. 스터디모임에서는 한의사가 링거도 맞고, 양의사가 보약도 먹는 화가에애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종교 역시 불교와 가톨릭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의학은 왜 만나지 못했는가? 한방과 양방이 오직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이라면 멋진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는 모든 분야의 학문을 하나로 보는 통섭(統攝, Consilience)이 큰 화두라고 한다. 한방과 양방이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의학으로 발전한다면 세계 의학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02)576-7575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氣 giban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뒹)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뒹) 6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10% DC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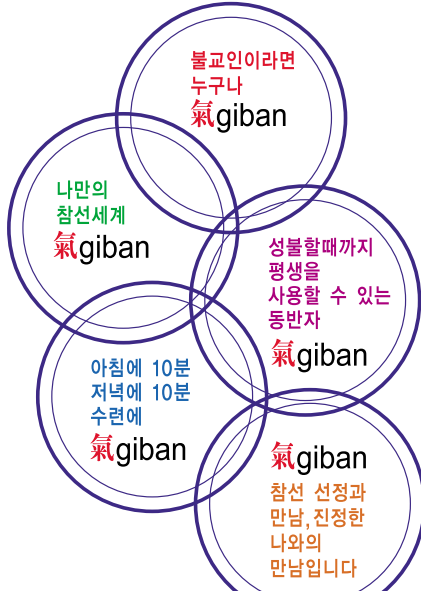
영양이 모양의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영당이 뒤쪽과 꼬리뼈와 화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침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 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용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기가 충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적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 제품 사용처
사찰, 선방, 수행단체
심신수련단체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는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이란?
희담석은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능인로즈마리·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실용성을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오일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